

분서갱유 (焚書坑儒)

최초의 황제 - 독재자 진시황(秦始皇)을 연상케 하는 역사적 사실중의 하나가 焚書坑儒이다. 「史記」에 기록된 「焚書」의 경위는 대략 다음과 같다.

진시황 34년(기원전 213년)에 함양궁(咸陽宮)에서 주연이 열렸다. 그 자리에서 군현제도를 찬양하는 학예상관 주청신(周靑臣)과 봉건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순우월(淳于越)이 시황 앞에서 대립된 의견을 놓고 싸웠다. 시황은 이 문제를 신하들에게 토의하게 했다. 승상 이사(李斯)는 순우월의 의견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진시황의 독재 뒤에는 이사의 이기적인 칼날이 언제나 빛나고 있었다. 이사는 「선비들의 그같은 태도는 임금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당파를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일체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음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다.

「사관(史官)이 맡고 있는 秦나라 기록 이외의 것은 모두 태워 없앤다. 박사(博士)가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것 이외에 감히 詩書나 百家語 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고을 수령들에게 바치게 해서 태워 없앤다. 감히 시서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저자에 끌어 내다 죽인다. 옛날 것을 가지고 지금 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일족을 다 처형시킨다. 관리로서 이를 알고도 검거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죄로 다스린다. 금령이 내린 30일 이내에 태워 없애지 않은 사람은 이마에 벽물을 넣고 성역형에 처한다. 태워 없애지 않는 것은 의약, 복서(卜筮), 농사(農樹)에 관한 책들이다. 만일 법령을 배우고자 할 때는 관리에게 배워야 한다」 시황은 이사의 이 안을 채택하여 실시케 했다. 이것이 焚書의 내력이다. 그후 시황은 「물에 들어가도 물이 묻지 않으며 불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고 구름과 같이 높이 떠서 천지가 있는 한 영원히 산다」는 허황된 욕망으로 460여명의 학자를 함양에 생매장 하였는데 이것이 坑儒이다.

이 밖에도 불(火)을 바탕으로 하여 유래된 중국의 故事는 많다.

●殃及池魚(양급지어)

새앙이 뜻하지 않게 아무런 죄도 없는 연못의 고기들에게 까지 미친다는 뜻으로, 이유없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뜻밖에 火災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 비유되어 쓰인다.

●焦眉之急(초미지급)

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라는 뜻으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매우 다급한 일이나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炮烙之刑(포락지형)

기름을 질한 구리 기둥을 숯불 위에 놓고 죄인으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여 미끄러져 떨어지면 숯불에 타 죽게 되는 형벌로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의 대명사가 되어 있다.

●燎原之火(요원지화)

요원의 불길 즉, 무섭게 번져가는 벌판의 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일이 무서운 기세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형세를 가리킨다. 또 세력이 대단하여 막을 수 없는 경우에 비유되고 있다.

●水炭不相容(빙탄불상용)

얼음과 불은 성질이 정반대여서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 즉, 성질이 서로 상반되어 도저히 화합할 수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金東一 / 연구원〉